

국민권익

국민권익 보호, 신뢰받는 정부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2013 11+12 vol.35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



용기있는 복지부정 신고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가 함께합니다



정부 복지사업 부정수급 특별 신고기간 운영 안내

✓ **운영기간** 2013. 12. 10.~ 2014. 3. 19.(100일)

✓ **신고상담** 전국 국번 없이 ☎ 110

✓ **신고접수**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홈 페이지 : www.acrc.go.kr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팩스 번호 : (02)2110-0678

우편·방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 **신고대상**

정부의 복지정책, 사업, 예산 등과 관련된 복지서비스(급여, 보조금·지원금, 인적·물적 지원 등 일체)를 부정하게 받는 행위

- 4대 사회보장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급여 부정수급
-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 의료, 주택관련 공적 보조 부정수급
- 그 밖에 복지사업, 시설보조금·지원금, 인적·물적 복지서비스 부정수급 등 정부지원 보조금의 부정수급, 횡령, 예산낭비 등

✓ **신고자 예우**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2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CONTENTS

11+12 vol.35

기획특집

- 04 커버 스토리
 - 반부패 경쟁력 강화 '국제학술대회' 개최
 -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
- 08 포커스
 - 민심을 찾아 지구 한 바퀴 반, 국민과 함께한 이동신문고 10년
- 12 110 행복 레시피
 - 민원인의 입장에서 안내해주세요

희망 전하기

- 14 SNS Talk Talk
 - SNS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 16 세대공감 소통
 - 웹툰으로 소통하는 시대!
- 18 국민권익 감동이야기
 - 딸의 명예회복을 위한 아버지의 눈물겨운 노력
- 22 이슈
 - 취약지역 여성 모성보호 강화 방안

권익 더하기

- 24 청렴한 세상, 행복한 국민
 - 개원 1주년을 맞은 청렴연수원
- 28 국민권익 Q&A
 -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요
- 30 이렇게 바뀔니다
 - 소소한 생활 불편, 손톱 밑 가시 긁기 전에 뽐는다

행복 나누기

- 34 전통시장 나들이
 - 제주도 특산물에 모두 모인 제주 동문시장
- 38 꼭 알아두세요!
 - 기초연금으로 든든하고 행복한 노후를!
- 40 건강 365
 - 세포 건강을 아십니까
- 42 감성충전
 - 우리나라 해돋이 명소 BEST 7
- 46 이야기 목민심서
 - 나랏돈, 절약과 베품
- 48 뉴스 & 피플
 -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개설 외
- 50 독자의 소리



2013 vol.35 11+12월호

발행일 2013년 12월 3일 (격월간, 비매품)
발행인 이성보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편집인 최학균
주소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군동)
전화 02. 360. 2761 팩스 02. 360. 3520
홈페이지 www.acrc.go.kr
블로그 blog.daum.net/loveacrc
트위터 twitter.com/loveacrc
페이스북 www.facebook.com/loveacrc
기획 · 디자인 디자인신화 02. 324. 6852
표지 작가 정윤미
인쇄 (주)이팩피앤피



반부패 경쟁력 강화 국제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권익위 이정보 위원장.

권익위 · 한국행정학회 공동 주최, 윤리 정부, 정부 3.0 등 주제로...

반부패 경쟁력 강화 국제학술대회 개최

'반부패 경쟁력 강화와 윤리적 거버넌스 구축'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행정학회 공동 주최로 열렸다. 국제학술대회는 반부패 시스템 개선과 국제협력, 정부 3.0 구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방향 제시를 통한 윤리정부와 스마트 정부, 국가경쟁력 제고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정리 박영화

15개국 430여 명 참석, 134개 주제로 발표

2012년 국제투명성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가 조사대상국 176개 국가 중 45위를 차지해 4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국민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아져 국정운영에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정부불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성공적인 윤리적 국가경영 구축을 위한 국제적 수준의 담론의 장을 펼치고 그 해법을 심도 있게 모색하기 위해 지난 10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는 정부,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 등 국내 350여 명과 해외 14개국 80여 명 등 430여 명이 발표와 토론자로 참여했다. 국내의 주요 참석자로는 오사무 이케다 일본 국가공무원윤리심사회 회장, 아니스 사이드 바사라마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 사무총장, 나나 야카라 룩사나 국제투명성기구 아태본부 본부장, 리아오 란 국제투명성기구 남아시아 중국담당, 스티븐 킨드레이 미국 행정학회장, 테리 쿠퍼 미국 남가주대 교수 등 정부, 민간단체, 저명한 학자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경험과 지식이 공유되어 발전적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

국제학술대회는 책임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윤리, 부패방지 시스템의 재구축과 국제협력, 윤리경영 기반 구축과 정부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정부 3.0 등의 주제로 7개 세션(53개 세부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발표와 토론 주제로 새로운 행정윤리의 쟁점, 부패의 체계적 진단과 구조적 대응, 한국행정윤리 연구의 통합과 미래, 공무원의 윤리의식 제고 등이 논의 되었다.

권익위 이정보 위원장은 개회식 기조연설에서 "정부가 공식사회의 부정부패를 바로잡는 데서 나아가 기존의 비정상적인 관행이나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국내외의 다양한 전문가가 대거 참여한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 세계 각국의 반부패 경험과 지식이 공유되고 발전적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반부패 경쟁력 강화 국제학술대회를 계기로 국내외 정부, 시민사회, 학계 등 전문가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국가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반부패 시스템과 윤리 정부를 구현하고 소통과 협력 등 정부 3.0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반부패 경쟁력 강화 국제학술대회에는 국제투명성기구, 해외 반부패기관, 국내외 학계, 시민단체 등 3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기조연설 하는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

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알리다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

지난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파나마의 수도인 파나마시티에서 제5차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세계 최대의 반부패 국제규범인 유엔반부패협약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 정리 박영화

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2003년 10월 31일, UN 총회에서 채택된 유엔반부패협약은 각국 정부가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국제기준을 제시하는 세계 최대의 반부패 국제규범이다. 168개의 협약 당사국들은 동료 평가를 통하여 해당 협약에 대한 이행현황을 상호 점검하고, 격년으로 개최되는 총회 등을 통해 반부패 분야의 지식과 정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이성보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권익위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소개해 당사국들의 큰 지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제재하며, 공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었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경쟁 분야 등 180개 법률의 위반 행위를 신고한 자를 보호하고 합당한 보상을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도 함께 소개하였다. 특히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최근 권익위가 발의한 개정안 등 유엔반부패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적극 피력하였다.

그리고 한국이 G20의 회원국으로서, 지난 2010년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G20 반부패 행동계획’의 구체적인 이행성과와 국제반부패아카데미와의 양자간 MOU 체결 및 협력활동도 소개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권익위가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 제도에 대한 인도네시아와 태국, 부탄, 몽골 등의 국가에 수출 실적도 널리 홍보하였다.

청렴교육의 전문화, 내실화를 위해

권익위는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총회의 ‘부패예방’ 세션에도 참가해 한국의 부패예방 분야의 성과를 회원국들과 공유했다.

부패예방 우수사례로 청렴 교육을 보다 전문화, 내실화하기 위한 청렴교육 전문기관인 청렴교육원 개원 소식과 맞춤형 교육훈련을 받은 대학생들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직접 반부패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해 실행하도록 한 ‘청렴코치 프로그램’이 소개되었다.

또한, 올해부터 외국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설한 청렴 교육과정을 통해 한국의 반부패 정책과 경험을 공유한 성과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이번 제5차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총회 참가를 통해 한국의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의지 및 성과가 국제사회에 널리 확산되고, 반부패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이 강화되기를 기대해본다.



민심을 찾아 지구 한 바퀴 반, 국민과 함께한 이동신문고 10년

지난 2003년 10월, 충북 청주에서 최초로 시작한 이동신문고가 지난 10월에 10주년을 맞이했다. 전국의 소외지역 그리고 소외계층을 찾아가 현장에서 고충민원을 해결하며 달려온 10년. 이동신문고가 달려온 거리만 해도 6만 킬로미터가 넘고, 이는 지구 둘레의 1.5배에 이른다. 지구를 돌만큼의 거리를 달려 국민의 고충을 해결해온 이동신문고의 10년을 되돌아본다. 글 김희정

이동신문고, 6만여 킬로미터를 달렸다

이동신문고가 10주년을 맞이했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소외지역과 장애인, 이주 노동자,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을 찾아가 고충민원을 듣고 직접 해결해 온 이동신문고가 지난 2003년 10월 시작 이래 10년을 맞이 한 것이다. 권익위가 이동신문고를 통해 지난 10년간 해결한 건수는 9,268건이며, 이를 위해 이동신문고가 달려갔던 거리는 6만여 킬로미터에 이른다.

이동신문고는 권익위 위원장이 이끄는 민원현장팀과 전문조사관들로 구성된 민원상담반을 조직해 매월 3~4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왔다. 고충이 있어도 해결할 길이 없어 막막했던 지역주민들은 현장을 직접 찾아온 이동신문고 전문상담원들에게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상담을 받으며 고충을 털어왔다. 이동신문고는 정부와 지역주민을 직접 연결하는 ‘현장중심’ 민원 상담제도로 지난 10년 동안 ‘국민소통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왔던 것이다.

민원상담반과 민원현장팀으로 운영

민원상담반은 지역의 민원수요에 따라 행정문화, 복지노동, 재정

세무,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산업농림, 도로교통 등 10개 내의 분야의 전문조사관이 편성되어 운영해왔다. 여기에 민·형사나 생활고충 분야까지 상담안내가 가능하도록 법률구조공단이나 관련 민간단체 등의 전문 인력도 지원받는다.

현장에서 상담한 민원 중 합의가 가능한 사안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한 민원 등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권익위에서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권익위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이끄는 민원현장팀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처리되지 못했거나 집단민원이 발생한 현장을 찾아간다. 민원현장팀은 민원의 피신청기관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중재하거나 갈등 당사자 간 이해 조정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합의해결을 이끌어내는데, 조정합의는 민법상 화해의 효력이 있으므로 신청인이 만족하는 민원 해결의 주요 수단이 된다.

민원·민생을 지역별·계층별로 접근

권익위는 이동신문고를 통해 고충민원 처리 서비스가 지역적 또는 계층적으로 소외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해왔다. 이를 위해 지역형 이동신문고와 맞춤형 이동신문고가 탄생했다.

지역형 이동신문고는 전국의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운영대상 지역을 약 3년 주기로 선정하거나 지역의 신청을 받아 운영해오고 있다.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소상공인, 이주 노동자, 다문화가정, 북한 이탈주민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이동신문고로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되었다.

한편, 이동신문고는 필요한 경우 고충민원 상담에 앞서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소통 간담회를 갖는데, 이때 제기한 지역주민의 민원이 다른 정부기관이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하는 사안인 경우에는 이를 해당 정부기관에 전달하여 검토한 후 반영하게 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하고있다.

이동신문고, 어떤 고충민원을 해결했나

전북 익산지역의 장기 숙원인 ‘왕궁축산단지’ 환경오염 문제 해결,



2월 20일 울산광역시 남구 소재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있는 이성보 위원장



4월 14일 경기도 안산시 소재 외국인력상담 센터에서 민원을 상담하는 권익위 조사관



5월 28일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시각장애인 민원을 상담하는 권익위 조사관

강원 고성군민 40년 숙원인 ‘대대리 포사격장’ 이전 문제 해결, 전남 강진만의 1300여 명 어업 피해 보상 문제 해결, 강원 양구군의 봉화산 ‘태풍사격장’주민 피해 문제 해결, 경기 연천군의 한센인 무허가 염색단지 양성화문제 해결 등은 이동신문고가 조정합의로 해결한 대표적인 지역의 숙원이었다.

이와 같은 지역의 굵직한 현안에 대한 조정합의 외에도 이동신문고는 2008년 권익위 출범 이후 총 7,725건의 고충민원을 상담했고, 이중 1,665건은 현장에서 신청인과 지방자치단체간 합의로 해결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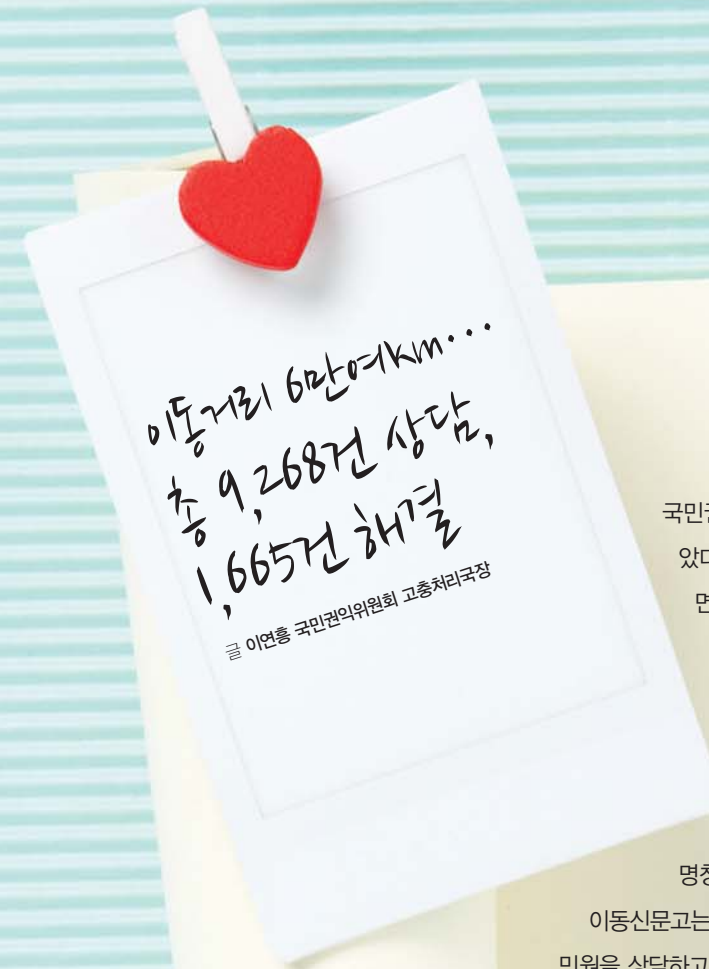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등 권익보호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올해에만 125건의 고충·애로를 처리하였는데, 이중에는 불법 체류자가 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구제 사례도 포함되어 있다.

이동신문고, 민생 속으로 계속 달려간다

사회구성원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다양화 될수록 고충민원의 내용도 그만큼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영세상공인, 학교 폭력, 청년층 취업애로, 어린이 교육, 복지사각지대 고충 등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충민원이고 이러한 민원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동신문고 역시 복잡하고 다양화되는 고충민원에 맞춰 발전하고 있다. 이동신문고는 앞으로 이슈별 고충민원 동향 등을 파악해 분석하고, 전문성을 갖춘 우수 조사관을 중심으로 상담반을 편성하며, 필요한 경우 세무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심리치료사, 금융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를 보강해 민원에 대한 현장 해결 또는 상담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역의 주요 현안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관련된 장기 미해결 민원이나 해결에 여러 관계 부처가 나서야 하는 민원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합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의 관련 사업이나 정책 담당자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도 함께 참여시킬 예정이다. 이동신문고는 국민의 다양한 고충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계속 변화하고 발전해나갈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민원 해결 서비스’인 이동신문고가 운영 10년을 맞았다. 한 달에 평균 3~4곳의 지역을 조사관들이 팀을 짜서 10년 동안 다닌 곳을 집계하면 270개 지역이나 되며, 여기 참여한 조사관 수만 해도 2,700여 명이나 된다.

권익위 조사관들은 농촌마을 어르신, 지역만리 외국인 근로자, 타향살이 외국인 며느리, 낯선 땅의 새터민, 손발이 필요한 장애우 그리고 평범한 이웃들에게도 작은 희망과 도움을 주고자 쉬지 않고 달려왔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기인 2003년 10월 충북 청주시에서 ‘전국 순회상담’이라는 명칭으로 첫 이동상담을 시작해 2009년 ‘이동신문고’로 명칭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동신문고는 10년 동안 270개 지역에서 연인원 2,700여 명의 조사관이 참여하여 9,268건의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1,665건을 현장에서 해결했다. 전북 익산지역의 장기 숙원인 왕궁축산단지의 악취와 폐수문제를 해결했고, 강원도 고성군민의 40년 숙원인 대대리 포사격장 이전을 중재했다.

강원도 양구에 있는 태풍사격장 주변지역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울주 쌍용하나 빌리지 위험지구 개선, 순천 신평마을 진입 좌회전 차로 설치, 양주 울대고개 교통 등 지역민들의 생활 속 불편과 어려움에는 늘 발 벗고 나섰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꼽는다면 익산 왕궁축산단지 악취 및 폐수 처리시설 설치 요구 민원을 해결한 것이다. 익산시에는 수십 년 전에 형성된 한센인들의 축산단지가 있는데 제대로 된 정화시설과 악취 방지시설이 없어 수질오염과 악취로 당사자들은 물론 인근 주민과 동진강수역 주민들에게까지도 큰 피해를 주고 있었다. 그러나 지자체의 부족한 재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계속 방치되고 있었는데 이동신문고를 통해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여러 부처와 기관의 협력으로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보상을 원만히 중재해 해결할 수 있었다.

강원도 고성군 읍내에 있는 포사격장도 마찬가지다. 고성군 대대리 마을은 40여 년 전부터 군부대 포사격 훈련으로 인근 주민들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데까지 소음으로 어려움을 주고 있었는데 이동신문고를 통해 다른 대체지역을 찾아 포사격장을 이전하기로 중재해 원만히 해결 되었다.

이동신문고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기본적으로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들을 처리해 준다.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재판을 통해 판결난 사안처럼 이미 다른 쟁송 절차를 밟거나 결말이 난 문제는 처리할 수 없다. 개인 간의 문제도 처리하기 어렵다. 대신 이러한 문제들을 다른 방법이나 절차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소상히 알려 준다.

이동신문고는 앞으로도 국민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 더 많은 고충해결을 위해 쉬지 않고 뛴 것이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안내해주세요~

“아~ 누나의 주소를 알 수 없나요?”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온 민원인은 깊은 한숨을 쉬며 자신의 사연을 털어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민원인의 누나는 이혼한 뒤, 자신처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부모를 모실 수 없어 자식을 데리고 가출을 해버렸다. 동생인 민원인이 연락이 끊긴 누나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문의해봤지만, 직계가족 외에는 알려줄 수 없다는 말만 할 뿐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했다. 누나의 직계가족인 부모님은 나이가 많으셔서 직접 알아보기 힘든 상황이었고, 관공서에서는 방법을 안내해주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었다.

“경찰과 동 주민센터에서도 주소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안전행정부 민원실에 문의해도 안 된다고 해서 다른 번호라도 달라고 하니 지금 이곳 110번을 알려주시더군요.”

이미 심신이 지쳐있는 민원인에게 ‘부모님이 계시고 누나가 세대주라면 누나의 초본발급을 할 수 있다’고 바로 방법을 안내했다. 그리고 오해가 없도록 더욱 명확한 규정도 설명해주었다.

“만약 누나가 세대주라면 부모님은 세대주의 직계혈족에 해당되어서 누나의 초본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형제는 방계혈족에 해당되어서 주민등록법상 누나의 초본발급은 불가능하십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이런 안내는 받은 적이 없었는지 민원인이 생소하다는 반응으로 되물었다.

“현재 누나가 세대주라면 부모님께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신 후 따님의 초본을 요청하면 바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조카가 세대주인 경우에도 초본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은 두 경우 모두 세대주의 직계혈족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누가 세대주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민원인에게 반복해서 설명해주었다. 민원인은 왜 다른 기관에서는 ‘주민등록법상 안 된다’, ‘개인정보보호에 걸려서 못한다’,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안 된다’라고만 하고 다른 방법을 안내해주지 않는지 답답해했다. 행정기관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혹시 무작정 방문해서 누나의 주소를 확인해달라고 하니 경우라면 초본신청과 별개로 받아들여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한 것은 아닌지’ 민원인에게 물어봤다.

“초본 발급신청을 했었어요.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안내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니깐 저는 답답하고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110 콜센터에서는 친절하게 방법을 알려주시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과 상담을 마친 후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한 번 더 민원인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맡은 업무의 법 제도를 열심히 공부한다면 이러한 불만의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그리고 그러한 상담을 해나가리라 스스로도 마음을 다져본다.

국민권익위원회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정부 민원에 대한 모든 궁금하고
불편한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대표민원전화 서비스입니다.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는
한 상담사의 상담 내용을
소개합니다.



희망 전하기

14

SNS Talk Talk

SNS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16

세대공감 소통

웹툰으로 소통하는 시대!

18

국민권의 감동이야기

딸의 명예회복을 위한 아버지의 눈물겨운 노력

22

이슈

취약지역 여성 모성보호 강화 방안

SNS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국민권익위원회는 SNS를 통해 국민 여러분과 실시간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보제공은 물론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오가는 SNS 세상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임신 중인 女軍은 30분안에 산부인과에 갈 수 있는 지역에 배치하고, 분만취약지역에는 산부인과 설치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취약지역 여성의 모성보호강화방안>을 여성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합동으로 마련하였는데,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룬 <최전방부대에서 근무하다 임신중 과로로 숨진 이신애 중위의 순직인정> 사례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자세히 보기: <http://blog.daum.net/loveacrc/6906>

(11월 18일)

twitter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 트위터

요즘 유치원이나 보육원의 부족한 급식에 관한 기사를 보면 마음이 아파요 ㅠ ㅠ
아이들이 영양 가득 맛있는 급식 먹고
이렇게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네요!
(박슬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단체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식재료 구매 및 안전, 위생·영양관리 등의 기준 마련이 추진되요~ 우리 아이들의 식사는 소중하니까요~^^ (11월 12일)

자세히 보기: blog.daum.net/loveacrc/6946

동해남부선(부산~울산) 철도와 인접해 있어 6년째 철도 소음과 진동피해를 겪어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센텀고등학교(2008년 개교) 학부모와 학생 약 2,900여 명이 제기한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관계기관 간 원만히 해결 할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학생들이 이제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겠죠? ^^

(11월 13일)

자세히 보기: <http://blog.daum.net/loveacrc/6952>



진짜 다행이네요! 학생들이
맘 놓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조세연)

택지개발사업 때문에 200여세대가 거주하는 주택가 근처에 설치예정이던 2만 2,900V의 고압선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주택가 반대 방향의 땅속에 매설될 수 있게 됐어요^^

참~다행이죠? (11월 13일)

자세히 보기: <http://blog.daum.net/loveacrc/6951>

loveacrc/6951

주택 주민이 고압선로의 위험에서 벗어나서 다행이네요^^
국민의 안전을 꼭~지켜주세요!
(김수빈)



사실 근로자는 여러모로 갈려 있어요. 여기서도 존중받지 못하고 저기서도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을 느낄 때가 잦답니다. 이제 하나씩 개선하여, 더욱 나은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Sohee Kim)



그동안은 산재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다가 산재요양이 종결되면, 이후에 추가 진료가 필요하더라도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중 어느 쪽 보험에도 적용받지 못하면서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11월 14일)

자세히 보기: <http://blog.daum.net/loveacrc/6954>

소셜미디어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친구가 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여러분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가고,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공유하기 위해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다음 블로그, 카카오 스토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더욱 가깝게 소통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댓글이 소개된 분들에게는 모바일 음료를 보내드립니다.

(댓글이 소개된 분들은 이메일(limbr@korea.kr)로 핸드폰 번호를 보내주세요.)

facebook



<https://www.facebook.com/loveacrc>

twitter



<https://twitter.com/loveacrc>

me2DAY



<http://me2day.net/loveacrc>

Daum



<http://blog.daum.net/loveacrc>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 친구찾기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acrc'를 검색한 후 권익위 소식을 받아보세요.

웹툰으로 소통하는 시대!

콘텐츠 시장에서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최근 '문화 트렌드'의 중심에 서 있는 '웹툰'. 영화는 물론이고 광고, 연극, 그리고 드라마 시장까지 진출하며 대중문화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나아가 해외수출까지 이뤄낸 웹툰의 성공, 바야흐로 '웹툰의 시대'이다. 정리 백경미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만화방에 앉아서 만화를 즐겨보던 '그 때 그 시절'을 뒤로하고 만화 시장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바로 웹툰의 탄생. 웹툰은 웹(Web)에서 보는 만화(Cartoon)이라는 뜻으로 만화와 디지털 문화가 만나 만들어낸 새로운 문화 콘텐츠다. 현재 웹툰은 스마트 기기 바람을 타고 빠르게 확산, '스마트툰'으로 진화하기도 했다.

웹툰의 매력은 쉽고 빠르다는 점이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이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웹툰을 감상한다. 이렇듯 30초 안에 한 회 분량을 감상할 수 있는 뛰어난 편의성 덕분에 단기간 성장이 가능했던 것.

네이버 웹툰의 경우 방문자가 하루 평균 620만 명, 한 달 평균 1,700만 명에 이르며, 다른 사이트까지 합친다면 국민의 1/3 이상이 웹툰을 본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10년 전 처음 시작된 웹툰 시장의 규모는 올해 1,500억 원, 2015년에는 그 두 배인 3,000억 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이런 웹툰이 이제 국경을 넘어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0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북페어에서 우리나라 30여 개 웹툰의 해외 판권 상담이 줄을 이었을 정도. 해외시장 공략을 위해 영어와 일본어를 지원하는 웹툰도 있으며, 주호민 작가의 '신과 함께'라는 작품은 이미 일본에서 리메이크되고 있다.

일상의 소소함을 다루는 '생활툰'부터 요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요리툰', 하나의 스토리라인을 전개해 나가는 '스토리형'까지 다양한 형태와 소재를 지닌 웹툰. 특히 김양수 작가의 <동네변호사 조들호>는 법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사회적 약자의 시각에서 법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많은 사람에게 공감과 인기를 얻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다룬 인기 웹툰 '동네변호사 조들호' 김양수 작가를 만나다

'2014년에도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국민권익위원회를 기대합니다.'



웹툰으로 풀어나가기 쉽지 않은 '법률'을 주제로 선택한 이유는?

드라마, 영화, 소설에서는 이미 다뤄진 소재인데 웹툰(만화)에서는 다뤄지지 않는 소재여서 제가 '만화로선 처음으로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있었죠. 가장 큰 계기는 어느 여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신문기사로 접하면서였습니다. 보증금을 떼먹힐 위기에 처한 할머니께서 어찌할 방법이 없다가 동네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할머니가 사정해도 안 되고 몇 번이고 찾아가도 안주던 보증금을 변호사님이 조리 있게 그리고 은근히 협박조로 전화를 해서 돈을 돌려받게 됐다는 기사를 보고,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활법정만화인데, 주로 사회적 약자 또는 소외계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이유는?

특히 소외계층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동네변호사니까, 무슨 거창한 정치싸움이나 거대한 음모보다는 말 그대로 우리 얘기를 우리 동네에 사는 변호사가 해결해 가는 이야기를 그리고 싶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외계층의 이야기도 담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네 번째 에피소드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관 법률이라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먼저 어려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인공인 '조들호'도 공익신고를 해서 불이익을 받은 변호사로 알고 있는데, 웹툰 전반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큰 인기를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연이나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주인공의 사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 왜 동네 한복판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사연을 설정

하다 보니 주인공이 과거를 가진 인물이 되었고, 그 과거는 큰 트라우마를 가진 것으로 설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큰 선(善)을 위해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버리고 조직을 고발한, 그래서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의 이야기, 하지만 다시 그것을 극복하는 주인공의 이야기가 독자들에게도 좀 더 공감을 얻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네변호사 조들호'를 통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사람의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입니다. 제 만화에서 조들호 변호사를 찾아오는 모든 의뢰인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거나 침범당했기 때문에 사건을 의뢰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일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법으로 보상을 받으려 하는 이유는 돈이나 다른 것을 대체 할 수 없는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소중한 가치를 회복해주는 국민권익위원회라면 제가 드린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대변하는 진정성 있는 변호사 '조들호'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또는 행정심판법을 통해 다시 한 번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소중한 지면을 저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 재밌는 만화 그리겠습니다.

※ '동네변호사 조들호' 보는 방법

네이버 웹툰에서 제목이나 작가 이름을 검색하면 볼 수 있다. 매주 목요일마다 업데이트 된다.

· PC 버전 <http://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546625>

· 모바일 버전 <http://m.comic.naver.com/webtoon/list.nhn?titleid=546625>

과로로 숨진 '故 이 중위', 순직 인정 딸의 명예회복을위한 아버지의 눈물겨운 노력

지난해 2월 이신애 중위는 임신 7개월의 몸으로 최전방 부대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 숨을 거뒀다. 하지만 더욱 안타까운 이유는 이 중위의 사망이 과로로 인한 '순직'이 아닌 '일반 사망'으로 처리된 사실이었다. 다행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 중위의 사망이 '순직'으로 인정되면서 딸의 명예회복을 간절히 호소했던 아버지의 바람이 이루어졌다. 정리 박영화



힘든 상황을 혼자서 감당하던 이 중위

여군 사관 출신인 이신애 중위는 임신 7개월의 몸으로 강원도 인제의 전방 부대에서 과중한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있었다. 공적인 업무를 대신 맡은 데다 혹한기 훈련을 준비하느라 몸을 추스를 겨를도 없던 이 중위. 몸이 붓고 이상 증상이 나타났지만, 겨우 잠잘 시간밖에 없는 빡빡한 일정에 왕복 3시간 거리에 있는 병원에 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하루하루 버텼다.

그 사이 이 중위의 건강은 날로 악화되었고, 급기야 배가 아프다며 쓰러졌다. 마침 함께 있었던 남편이 쓰러진 아내를 발견하고 급히 병원으로 옮겼다. 하지만 뱃속의 아이만 제왕절개로 출산한

후 이 중위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자부심은 원망으로 바뀌고...

6·25 참전용사였던 할아버지와 육군 중령이었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군인이 된 이 중위는 3대가 군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누구보다 열심히 군 복무를 해왔다. 하지만 이 중위의 죽음은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사망의 원인이 된 임신성 고혈압이 군 복무로 인해서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딸에 대한 아버지의 자부심은 군에 대한 억울함과 원망으로 바뀌었다. 아버지는 열악한 환경에서 헌신을 다해 군 복무를 한 딸의 죽음을 보며 뼈저린



아픔을 느꼈고, 권익위에 딸의 명예회복을 찾아주길 간절히 호소하였다.

함께 노력해준 고마운 사람들

아버지는 권익위 조사관과 상담을 하면서 처음에는 암담함을 느꼈다. 군인이 임신 중 사망한 사례가 처음이었고, 질병과 사망의 관계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으므로 최종 처리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권익위 조사관은 이 중위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자식을 둔 아버지의 입장에서 조사할 테니 어렵겠지만 함께 노력하자'는 말로 위로했다. 조사관과 잠깐 나눈 대화였지만, 막막하기만 했던 아버지

의 마음이 기대로 바뀌었다. 함께 노력해주는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면 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 후로 몇 개월이 지나고, 드디어 권익위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조사결과 서류를 한참 동안 바라보던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서류에는 산부인과 의사소견을 비롯하여 전역한 동료의 진술까지 딸이 군 복무를 하면서 수행한 모든 부분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분주하게 움직이며 근무하는 딸의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이 중위의 죽음, 순직으로 인정되다

권익위는 '이 중위의 사망을 과로로 인한 순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망 전 산부인과 검사결과, 업무량 증가, 주변인 진술, 의료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이 중위의 사망원인인 '뇌출혈'과 '임신성 고혈압'이 급격한 업무 과중으로 인해 악화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행히 육군본부에서는 이러한 권익위의 판단에 동의하여 이 중위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하였다. 이 사건은 전국 8천여 명에 이르는 여군의 복무환경과 권익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이 정책 변화로 이어지다

얼마 전 권익위에 이 중위 아버지의 편지가 한 통 도착하였다. '장

례식을 치르면서 사단장님이 보여주신 배려와 정비대대 전 장병들의 헌신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며 '딸의 명예가 회복되어 무거운 짐을 덜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누구도 접근하려 하지 않는 오지에 산부인과가 들어서서 임신한 여군들이 마음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도 전했다.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은 정책 변화로 이어졌다. 최근 여성가족부, 국방부, 보건복지부는 힘을 모아 격오지에 외래진료 산부인과를 확대하는 등 취약지역 여성 모성보호 강화 방안(뒷면)을 마련하여, 딸을 잃은 아버지의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였다.

취약지역 여성 모성보호 강화 방안

지난 2월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하던 이신애 중위가 직무 중 임신성 고혈압으로 순직한 사건을 계기로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의 안전한 분만 환경조성과 모성 건강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방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취약지역 여성 모성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리 박영화



여군 모성보호제도 활성화

국방부는 임신 여군에게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고, 태아검진 휴가 활용 강화, 유연근무제 활성화,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임신여군을 보호관심 간부로 선정하여 산전진찰, 건강관리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임신여군에게는 산부인과 인근지역으로 보직을 조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군 특수성을 감안한 임신주기별 여성보호 및 관리를 위한 임신여군 관리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취약지역 산부인과 진료 강화

보건복지부는 공공형 산부인과를 올해 9개소에서 2017년까지 12개소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분만 산부인과 운영이 어려운 지역은 외래 산부인과 설치를 지원하고, 취약지역의 경우 인근지역에 거점 산부인과를 지정하여 분만, 산전진찰, 사후관리, 이송지원 등 순회 진료한다. 국방부는 군병원 산부인과 전문의를 점진적으로 증원하고 여군이 의과대학 위탁교육을 원할 때는 산부인과 전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취약지역 모성보호를 위한 교육·연구

여성가족부와 국방부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전국 152개소를 통해 취약지역 여성대상 임신 전·후 건강관리, 태아발달과정, 우울증 예방 등 모성건강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한다. 군내 전문인력(간호장교)을 활용하여 전방부대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순회교육도 실시한다.

여성가족부는 성별 건강 형평성을 높이고 취약지 적정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공공보건의로 기본계획에 대한 성별 영향분석 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취약지역 모성건강 현황파악 및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도 실시할 예정이다.



권의 더하기

24

청렴한 세상, 행복한 국민
개원 1주년을 맞은 청렴연수원

28

국민권의 Q&A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요

30

이렇게 바꿉니다
소소한 생활 불편, 손톱 밑 가시 긁기 전에 뽐는다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청렴문화의 산실

개원 1주년을 맞은 청렴연수원

우리나라 유일의 청렴전문 교육기관인 청렴연수원이 개원 1주년을 맞았다. 지난 2012년 10월 25일 청렴교육을 전담하는 독립기관으로 출발한 청렴연수원은 그간 이곳을 다녀간 4천5백 명의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을 바꾸는 청렴한 인재양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청렴교육을 시행해왔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더 멀지만, 출범 첫해를 맞은 청렴연수원의 지난 1년은 청렴교육에 있어서 작지만 큰 디딤돌을 내디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글 이용규 사진 최충식

우리나라 청렴교육의 시작은 지난 2002년 부패방지 위원회가 출범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다 국가청렴위원회로 기관명이 변경되면서 청렴교육관을 개관하게 되었고,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으로 확대되면서 공무원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공직사회의 부패방지과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는 엄정한 처벌과 같은 사후적 대책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부패를 스스로 통제하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청렴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에 권익위는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청렴 의식을 확산하고자 지난 2012년 10월 25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에 전문 청렴교육기관인 청렴연수원을 개원하게 되었다. 특히 청렴연수원이 자리한 이곳은 청주지방법원과 청주지방검찰청이 있던 곳으로, 두 청사가 이전한 후 방치된 청사를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청렴연수원을 개원했고, 연수원 본연의 역할과 더불어 청렴공원을 조성해 지역 주민들에게는 열린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쉽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청렴교육이라 하면 먼저 딱딱하고 지루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쉽다.

기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대한 선입견과 '나는 충분히 청렴한 사람인데 교육까지 받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교육이 시작되면 흥미를 느끼고 실제 업무 환경에서 겪는 문제점들에 대해 생각하며 몰입하게 되고, 끝날 즈음에는 '참 의미 있는 시간 이었다.', '청렴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생각하게 된다.

무엇보다 교육내용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재미 있고 진부하거나 딱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14일 청렴연수원의 강의실에 구성된 우리 가락이 울려 퍼졌다. 교육시간에 판소리 한마당이 펼쳐지는 것이 다소 의아할 수 느껴지는데, 이는 청렴교육 첫 시간에 이뤄지는 '아이스 브레이킹' 과 정이다.

청렴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부패란 단어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며 받



(좌) 청렴연수원 본관에는 분임토의실, 참여·강의형 강의실, 체력단련실, 세미나실 등이 들어서 있다.



(우) 청렴교육의 하나인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해 진행된 판소리 공연.

아들이기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해소하고 교육생들의 흥미를 이끌어 내기 위해 판소리와 가야금 연주를 마련한 것이다.

“오늘 오신 여러분, 이몽룡이가 과연 예조판서를 맡을 만한 인물인지 이 자리에서 청문회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몽룡이는 춘향을 만나러가는 자리에 관용차인 말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니 결격사유로 충분하지요? 알쭉~~”

과거의 불미스러운 행적 문제로 이몽룡은 여론 질타와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으로 결국 예조판서 후보 자리에서 자진사퇴하게 되었다는 말에 교육생들의 박장대소가 터지고 경직되었던 강의실이 한결 여유를 찾았다. 이처럼 청렴연수원 교육과정은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닌, 닫힌 마음을 열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다른 기관에서 이뤄지는 교육과는 차별성을 가진다.

청렴교육의 성과는 ‘이번 교육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던 청렴의 잘못된 기준을 발견하고 향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었다’는 교육생들의 평가를 통해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이끌어낸 작지만 큰 변화

“우리나라는 청렴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청렴연수원이 의사결정을 갖춘 독립기관으로서 자율성을 가지게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재준 청렴연수원장은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적인 청렴교육이 행해져 왔지만, 연수원 출범 후 지난 1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고 자부하며, 지루하고 재미없다는 편견을 넘어 감동과 의미를 주



청렴연수원을 다녀간 참가자들이 남긴 후기가 인상적이다.



청렴연수원 직원들이 참여자의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 청렴콘서트 등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는 청렴교육에 주안점을 둔 것이 유효했다고 평가한다. 청렴연수원 교육과정은 문화와 예술을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철저한 사례 위주의 교육과 과학적으로 설계된 교육 프로그램, 개인 성격별 부패 대처방안 토론 등을 통해 교육생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그런 만큼 청렴연수원은 지난 한 해를 청렴교육에 있어서 작지만 큰 디딤돌을 놓은 한 해로 평가하고 있다.

현재 청렴연수원을 꾸려가는 구성원은 16명. 다른 조직에 비해 행사도 많고 어떤 날은 하루에 교육 과정이 여러 개 겹칠 때도 있지만, 각자 맡은 바 소임 그 이상을 소화해내기에 조재준 원장은 직원들을 멀티플레이어라 부르기도 한다.

“교육 첫날 아침에 보았던 교육생들의 시큰둥한 표정이 점차 밝아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우리 연수원 직원들의 보람이자 긍지죠. 청렴에 대해 막연히 생각했다가 많은 것을 깨닫고 간다는 피드백을 접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그는 청렴교육은 접근하기에 따라 그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새삼 깨달

은 시간이었다고 말한다.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일적인 정신교육을 했다면 분명 큰 효과를 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재준 원장은 올해 실험적으로 도입해 운영한 노래공연, 연극, 게임, 퀴즈 등을 접목한 청렴콘서트를 전 과정으로 확산해 2014년에는 명실상부하게 청렴연수원 대표 브랜드로 정착시키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다.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공직자의 알선, 청탁과 같은 이른바 ‘그들만의 리그’는 국민들의 불공정에 대한 감수성을 자극하는 주범이다. 그럼에도 많은 공직자들은 이 정도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가벼이 치부해버리기 쉬운데, ‘이것도 부패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공과 사를 엄정하게 분별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청렴연수원 교육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청렴연수원은 현재 충북대전지역의 윤리학과 교수 등 전문가와 팀을 꾸려 체계적으로 방법론과 청렴의 가치에 대해 연구해 내년에는 좀 더 받아들이기 쉽고, 목적의식이 분명하며 효과성을 평가하기 용이한 청렴교육 시스템을 준비 중이라고 하니 형식적, 내용 면으로도 더욱 알찬 청렴교육을 선보이는 청렴연수원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본다.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요

[국민권익 Q&A]에서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인 행정심판, 또는 고충민원 사례 등을 Q&A 형식으로 재구성해 소개합니다. 일러스트 유환석



Q 과거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 K씨는 면허 취소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를 경찰에 알리지 않고 새로 면허를 취득하게 되었는데, 이를 뒤늦게 경찰청이 알게 되어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경찰청의 이 같은 처분은 감사원의 대책 요구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지난 4월 감사원이 도로교통공단과 보험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의 교통사고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 처벌받지 않은 사람이 5,000여 명이나 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은 이들에 대한 처리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거 무면허 운전 시점부터 1년 이내에 면허를 새로 취득한 600여 명에 대해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를 취소하고 향후 2년간 면허를 딸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K씨의 운전면허 취소는 마땅한 것인가요?

A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내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는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권익위는 무면허 운전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 무면허 운전을 했더라도 이 사실이 적발된 상태가 아니라면 법에서 규정한 '결격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새로 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 단지 경찰에 스스로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저는 플라스틱 골판지를 제조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 판매한 골판지가 조립과 접착·인쇄를 거친 후 골판지 박스로 만들어져 판매되었다는 이유로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저희는 골판지 박스업자가 아닌 골판지 제조업자이기 때문에 폐기물 부담금을 내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한국환경공단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공단 측은 환경부 예규인 '폐기물 부담금 사무처리 규정'에 '최종단계의 완제품을 단순 절단·접착·인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바로 전 단계의 제품 제조자에게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권익위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A ▲ 환경부 예규는 행정조직 내부에서 효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에 불과해 대외적인 구속력을 인정받기는 어렵고, ▲ 폐기물 부담금 부과처분은 엄격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관련 법령에 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자는 '최종단계의 제품을 제조하는 자'로만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규칙에 '최종단계의 완제품을 단순 절단·접착·인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바로 전 단계의 제품 제조자에게 폐기물 부담금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이익한 처분입니다. 따라서 중앙행정심판위는 민원인의 회사에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1929년생인 저희 아버지는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투 중 상이를 입고 전상군경으로 등록된 참전용사였습니다. 2012년 11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국립묘지에 안장하려 했으나, 지난 2002년에 아버지가 「먹는물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당했습니다. 아버지가 형을 확정받았을 당시 같은 지역 내 아버지와 유사한 「먹는물관리법」 위반행위로 아버지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선고유예를 받았고, 아버지는 단순히 항소하지 않았을 뿐인데, 형 확정만 가지고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당한 것은 억울합니다.

A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 항소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다른 피고인들보다 당초 고인이 낮은 형을 선고받은 점, ▲ 판매한 샘플의 양과 그 대가로 취한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고인은 샘플 20리터 1통당 200원씩 1일 약 20통 상당의 이득액을 취함), ▲ 샘플을 판매하게 된 경위와 판매방법에 비추어 참작할 점이 있는 점, ▲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 참작요소 역시 고인에게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점, ▲ 선고유예의 경우 관계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형만 가지고 고인을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로 판단해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소한 비행, 경미한 범죄 등의 경우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및 관련 행정청은 단순히 확정된 형량에만 주목하지 말고 사실 확인 및 재량권의 적법·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중앙행심위에서 신청인의 취지를 받아들이는 재결을 한 경우 처분을 내린 피청구인 등은 신청인에게 내린 처분을 의무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Q 저는 경기도 광주시에서 허가를 받고 도로부지를 차량 진입출로와 주차장으로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수원국토관리사무소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면서 공시지가가 높은 차고용지를 기준으로 한 점용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미 광주시에서 허가를 받았던 것인데 점용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A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0년 9월 개정된 도로법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차고 진입출로 및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던 도로부지의 점용료를 인접 차고용지의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을 내렸습니다.

▲ 2010년 9월 개정되기 전의 도로법시행령에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도로점용료 산정의 기준으로 삼도록 한 것'은 도로자체의 가격산정이 용이하지 않아 인근에 있는 유사 성격의 다른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해 합리적인 점용료를 산출하고자 하는 데 있었으며, ▲ 여기서 말하는 '인접 토지'란 점용도로의 인근 토지로서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 도로를 점용하는 주된 사용목적과 비교할 때 차고용지는 점용부분의 사용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차고용지가 2007년분~2010년분 점용료 산정의 기준토지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2010년 9월 개정된 도로법시행령에는 점용료 산출기준이 도로점용 부분과 '달아 있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산출기준이 적용되는 2011년분 이후의 점용료 산정은 타당합니다.

소소한 생활 불편, 손톱 밑 가시 뽑기 전에 뽑는다



손톱 밑 가시를 누가 뽑을 것인가? 손톱 밑 가시라서 눈에 띄지는 않지만 따끔거리며 고통스러워 온몸으로 고통이 퍼질 수도 있다. 부어올라 굼기 전에 뽑는 것이 해결 방법이다. “거창한 정책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민원부터 해결해야 하며, 한 가지 민원이 해결되면 10만 가구의 동일한 민원이 해결되는 효과가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 손톱 밑 가시 뽑기가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글 김성숙

아파트 당첨 공고에 공개된 이름과 생년월일을 보고 당황한 적이 있는가? 혹은 출국 전에 자동차 검사 기간을 미리 연장하려는데 출국 후에 발급 가능한 출국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경우는 또 어떤가?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아달라고 호소하면 담당자는 규정이 라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만 돌아온다. 담당 공무원도,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도 사소한 가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법령이나 제도의 불합리, 부처 간 협업 부족, 제도의 운용 미숙 등을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렇듯 사소하지만 불편한 손톱 밑 가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에게 직접 듣고 해당 부처와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권익위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온라인 정부 민원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들어온 민원 중 실생활에서 소소하게 불편을 일으키는 ‘손톱 밑 가시’를 발굴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했다.

이번 ‘손톱 밑 가시’ 불편들은 그동안 관계 부처를 통해서도 민원으로 줄곧 들어오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근원적으로 개선하지 않아 중복해서 민원이 생기던 것들로, 권익위가 나서서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 안팎에서 자유롭게 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한 학점은행제가 정작 평생학습기관에서 과목당 이수할 수

없고 패키지로만 수강하도록 운영되고 있는 점 등 원래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운영되고 있는 7개 분야 손톱 밑 가시를 찾아냈다. 학점은행제 과목별 이수 허용 외에도 자동차 검사 관련 제도개선, 과적차량 등 운행 제한 차량 허가 업무 원스톱 처리,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합리적 부과 방안 마련, 수상레저스포츠 관련 보험 갱신 여부 확인 방법 강구, 주택임주자 모집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

출국 전 ‘자동차 검사 연장 신청’ 허용

출국 전에 자동차 검사 연장 신청을 할 수 없을까? 지난해 12월 국민신문고에는 “해외파견을 이유로 자동차검사 연장 신청을 하려고 문의하였더니 출국 후 발급되는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한다.”라는 민원이 접수되었다.

자동차 소유주가 출국할 일이 생길 경우 자동차 검사 연장 신청을 하려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출국 후에 발급되는 서류로 출국 전에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종에 따라 6월~2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실시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러한 불편을 줄이고자 앞으로는 출국 전이라도 관



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하였다. 출국 전에 출국할 예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즉 입국허가서나 항공권 등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대표자, 상호 등 단순 사항을 바꾸더라도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을 반납 후 재지정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단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라는 내용도 같이 포함하였다.

과적차량 운행 허가 업무 이원화, 원스톱으로 개선

화물차량 운전자가 받아야 하는 과적차량 운행 허가 업무를 한 기관에서 처리할 수 없을까? 지난 3월 국민신문고에 “과적차량 단속의 주체가 지자체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적용 법령도 달라 효율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불편이 접수되었다.

현재 과적차량 운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지방국토관리청과 경찰청에서 각각 운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전체 무게, 폭, 길이, 길이에 따라 운행을 제한하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행 허가를 해주고 있다. 경찰청(경찰서)에서는 자동차별 승차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따라 운행을 제한하며, 운행 시마다 운행

허가를 하고 있다.

권익위는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와 경찰청(경찰서)에서 현행처럼 모두 허가 신청을 받도록 하되, 신청을 받은 기관에서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운행 허가서 발급 등 관련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하였다.

학점은행제 패키지, 교육 기관 변경 시 이수 과목 인정해!

지난해 6월, 국민신문고에 “지방의 평생교육원에서 학점은행제를 통해 일부 과목을 이수하고 서울로 이사하게 되어 아직 이수하지 못한 과목만 서울에서 이수하고자 하였으나, 학점은행제는 패키지 로 운영되기 때문에 과목별 신청이 불가하다.”는 교육원의 답변을 듣고 이를 개선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었다. 학점은행 패키지는 학교 안팎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와 동등한 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학점은행제 시행의 취지와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학점은행제 이수를 과목별로 가능하게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권고하였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방법 개선

경유 차량 소유자가 내야 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현행 제도에서는



배기량과 차령(車齡)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어 주행거리가 짧은 운전자는 실제 오염 유발 정도와 비교해 부담금을 많이 부담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지난해 3월 “주행거리에 따라 환경을 오염시키는 정도가 다르니 주행거리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달라”, “하루에 10리터도 안되게 사용하는 차량이나 같은 차종이면서 수백 리터를 사용하는 차량이나 배기량이 같다고 동일하게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올라왔다.

이에, 권익위는 경유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주행거리 등 실제 오염 유발 정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부과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환경부에 권고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 주행거리 연동제 관련 법안인 ‘자동차 정책기본법 제정안’을 마련 중이며, 환경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주행거리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 법안은 법제처 심사 중이다.

동력수상레저지구 보험 갱신 관리 개선

혹시 무보험 모터보트를 탄 경험이 있는가? 사업자 이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동력수상레저지구 소유자와 수상레저사업자가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계속 가입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발생 시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거나 보상 관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기구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증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어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보험 기간이 종료되어 갱신해야 할 때에는 실제로 갱신했는지를 행정 기관이 확인할 방법이 없어 무보험인 상태로 기구를 사용하거나 사업을 하는 일도 있다. 동력수상레저지구 소유자나 수상레저사업자가 보험 갱신 여부를 관리청에 통보할 의무가 없고, 관

리청은 이를 확인할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보험인 상태에서 사고 발생 시 보상문제 등의 민원을 줄이고자 권익위는 보험갱신 여부도 지속해서 확인할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도록 해양경찰청에 권고했다.

실명과 생년월일 공개된 당첨자 공고 개선

아파트입주자로 당첨되었다는 공고를 확인하고 많이 당황한 경험 이 있을 것이다. 당첨된 주택의 동과 호수, 그리고 실명과 생년월일이 모두 공개된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에 권익위는 당첨자나 예비 입주자 등의 신상정보를 신문 등에 공개할 때는 성명 세 글자 중 한 글자를 생략하거나 출생 연월일을 연월, 연일, 월일 등으로 개선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하였다.

또한,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일반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글자 크기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문화재 관람료 신용카드 결제 가능하도록

사찰에 입장할 때 관람료를 신용카드로 내려다 거절당한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문화재 관람료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지만, 민간 사찰 관람료는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관람료를 징수하는 주체가 민간(종교)단체로 면세대상이라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금이 없는 개인이나 결제 금액이 큰 단체 고객은 불편할 수 밖에 없다.

이에 권익위는 문화재 관람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문화재 관람료를 받을 때 관람객에게 문화재 목록 및 위치를 알리도록 문화재청에 권고하였다.



행복 나누기

34

전통시장 나들이

제주도 특산물이 모두 모인 제주 동문시장

38

꼭 알아두세요!

기초연금으로 든든하고 행복한 노후를!

40

건강 365

세포 건강을 아십니까

42

감성충전

우리나라 해돋이 명소 BEST 7

46

이야기 목민심서

나랏돈, 절약과 베품

48

뉴스 & 피플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개설 외

50

독자의 소리



동문시장은 제주도를 대표하는 시장으로, 이곳에 가면 일단 두 번 놀라게 된다. 시장규모가 큰 것에 한번, 그리고 좋은 물건을 착한 가격에 파는 것에 또 한번. 제주 시내 한복판, 특히 공랑과는 10분 거리에 인접해 있어 관광객들이 여행의 마지막 코스로 즐겨 찾는 곳으로도 유명한 동문시장은 지난 1980년대에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이 일대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지난 2001년 동문재래시장과 동문수산물시장으로 분리되었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동문시장으로 불리고 있다.

제주산 은갈치들이 모여드는 제2의 고향

동문시장에 오면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곳이 수산물 코너이다. 길게 늘어선 가게마다 제주산 은갈치, 고등어, 옥돔, 아귀, 참조기 등 제철 생선들과 횃감을 진열해놓고 있어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다양한 어종 가운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갈치. 특히 갈치는 제주에서 가장 많은 양이 거래되고 있어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갈치들에게 이곳은 제2의 고향과도 같다. 낚시줄로 잡아 흠집 하나 없는 늘씬한 자태를 자랑하는 것이 제주산 은갈치만의 매력. 갈치는 언제 먹어도 맛있지만, 찬바람이 드는 지금부터가 맛이 좋을 때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가게마다 좋은 갈치를 골라 택배를 보내려는 사람들로 분주한데, 오늘 구매한 물건들은 바로 다음날 전국 어디에서든 받아볼 수 있어 좋다.

제주에서 나고 자란 특산물이 여기 모두 모였다!

제주 동문시장

청정해역을 자랑하는 신비의 섬 제주. 섬이라는 특성상 일찍부터 어업이 발달한 곳이다 보니 사시사철 싱싱한 해산물이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또 우리나라 최고의 감귤 생산지답게 어디를 가더라도 탐스러운 노란 빛깔의 향연이 입맛을 자극한다. 모두가 손꼽는 최고의 여행지 제주에서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구경했으니 이제 제주의 속살을 들여다볼 차례. 그래서 이곳 사람들의 삶을 가장 자연스럽게 들여다볼 수 있는 곳, 제주 동문시장을 찾아가보았다. 글 이용규 사진 한용환



동문시장에 오면 제주산 은갈치.



동문재래시장의 입구.





온갖 생선이 모여있는 동문재래시장에는 넘쳐난다.
인심까지 넘쳐난다.

“오늘 새벽에 제주 바다에서 바로 잡아온 물건들이니 얼마나 신선하겠어요? 멀리 육지에서 예까지 오셨으니 진짜배기를 드셔야지. 한번 드셔 봐. 우리는 마음 없는 소리는 안 해.”

동문시장에서 20년 동안 갈치만 팔아왔다는 이차순 씨는 “평생을 먹어도 질리지 않는 생선이 제주 갈치”라며 다른 지역의 것과는 ‘때깟’부터가 다르다고 자랑한다. 빛깔 고운 제주 은갈치의 자태에 사로잡힌 여행객들이라면 느끼는 인지상정의 마음. 이 순간 문득 집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얼굴이 눈에 아른거린다. 그리고 결국 여행 내내 즐라했던 지갑을 아낌없이 풀고야 만다. 금세라도 펼쳐저릴 것만 같은 은빛 유혹에 기꺼이 승복하는 심정으로 말이다.

좋은 품질에 착한 가격은 기본, 넉넉한 인심은 덤

시장구경 중에서도 어물전만큼 흥미롭고 신기한 볼거리가 또 있을까 싶다. 갈치와 더불어 제주를 대표하는 생선인 옥돔은 제주사람들에게도 각별하다. 비늘이 없고 비린내도 없어 유일하게 제사상에 올리는 귀한 옥돔을 노릇노릇하게 구워내 뜨끈한 밥과 함께 먹으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진미. 동문시장에는 지금 제철을 맞은 생선들의 천국이다. ‘못 생겨서 미안하지만 맛은 일품인’ 아귀를 손질하는 상인의 손길이 분주하고, 살이 통통하게 오른 제주 참조기는 한 소쿠리 가득 만 원이라는 착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얼마했수광? 에이~~조금 더 줘서게” 외지인의 어설픈 흥정에 “기분이요”라며 덤을 주는 넉넉한 인심도 재래시장에서만 볼 수 있는 훈훈한 풍경. 길게 늘어선 생선 골목에서는 회를 떠서 파는 가게들도 많은데, 고등어회, 갈치회, 광어회, 방어회 한 접시가 각각 만 원에 판매되고 있어 싱싱한 회를 부담 없이 맛볼 수 있기에 좋다. 특히 회를 뜨고 남은 생선뼈와 대가리 부위는 3천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어 매운탕까지 즐기는 일석이조의 만족감이 있다.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것

동문시장은 상설시장으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만큼 뽕글뽕글 돌며 시장 탐험을 하는데도 제법 시간이 소요된다. 수산시장을 돌아 나와 재래시장으로 향하니 육지에서 볼 수 없는 먹을거리들이 시선을 잡아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빙떡. 메밀가루를 반죽해서 돼지비계로 지진 전에 무채를 넣고 말아낸 빙떡은 차갑게 해서 먹는 것이 특징. 간이 거의 없어 처음 맛보는 이들은 고개를 가우뚱하기도 하는데 그 삼삼하고 시원한 맛에 한번 빠지면 자꾸 생각나는 묘한 중독성이 있는 토속음식이다.



평범한 생김새와 다르게 삼삼하고 시원한
맛이 일품인 빙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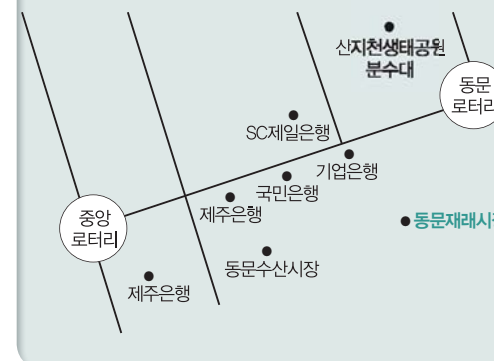
생필품까지 없게없이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제주동문시장 가는 길

주소 제주시 이도 1동 1329-6

문의 064-752-3001

홈페이지 <http://dm.market.jeju.kr/>



제주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감귤이다. 지금은 동네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을 만큼 흔해졌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귤은 제주에 가야 먹을 수 있는 ‘메이드 인 제주’의 대표적인 상품이였다. 지금도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선물용으로 선호하는 제주산 감귤은 달고 풍부한 과즙이 일품이어서 그런지 확실히 제주에서 맛보는 귤 맛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지금부터 내년 3월까지 본격적인 생산시기를 맞아 동문시장에서는 서귀포 밀감 5kg이 1만5천 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보통 한 박스에 50~60개 정도 수량이 들어가니 온 가족이 먹기에 충분한 양이 될 듯하다. 이밖에 감귤 비타민, 감귤 초콜릿, 감귤 젤리, 감귤 막걸리 등 감귤을 이용한 제품들이 많아 선물용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동문시장 구석구석을 구경하고 그곳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임박한 비행기 출발 시간이 아쉽고 정든 제주를 떠나기가 서운해진다. 공항 가까이에 동문시장이 있어서 그나마 여행의 아쉬움을 달래고 마무리를 잘할 수 있었다는 여행 후기들을 보니 새삼 동문시장의 존재가 고맙고 또 반갑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 이상의 정이 남아있는 곳, 인정 많고 마음씨 고운 사람들이 많은 곳, 이곳이 바로 제주 동문시장의 참모습일 테다.

기초연금으로 든든하고 행복한 노후를!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든든하게 지원하고 자녀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대책만큼 많은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실정이다. 행복한 노후의 시작이 될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고 준비하도록 하자. 글 백경미



OECD 34개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 1위, 대한민국. 우리나라 노인 45.1%, 즉 2명 중 1명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약 1,000세대나 되는 노인이 가난과 씨름하고 있다. 이대로 둔다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위험하다. 그래서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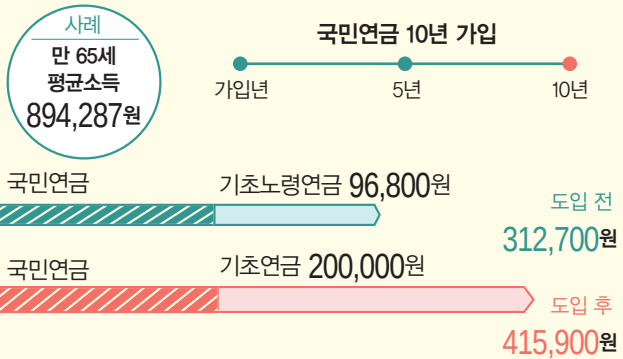
정부는 모든 노인이 연금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65세 노인들이 기초연금액을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받는 기초연금 법안을 최종 확정했다. 단, 소득 하위 70% 노년층에 대해 기준연금액(20만 원)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감안해 지급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30%를 제외하고 391만 명에게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것.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노인 중 90%인 353만 명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외의 대상자에게도 10만 원 이상을 보장한다. 또한,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본인만 받는 국민연금은 그대로 받으면서 최대 2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모두 현행 기초 노령연금보다 많이 받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기초연금액은 5년마다 물가상승률과 생활수준, 국민연금 소득 증가율,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차등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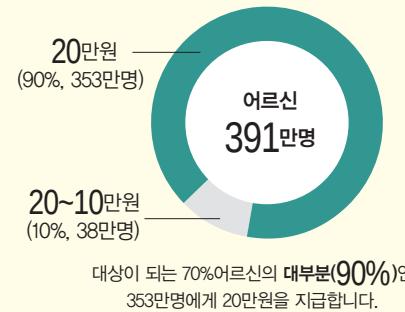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차등 지급한다는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많은 실정이다. '왜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유지하지 않고 국민연금과 연계하는가'부터 '국민연금 비가입자에 비해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불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 또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손해

기초연금 도입으로 혜택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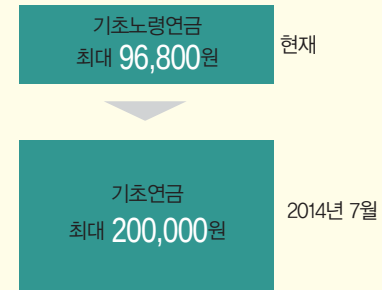


든든한 행복 노후의 시작, 기초연금 (정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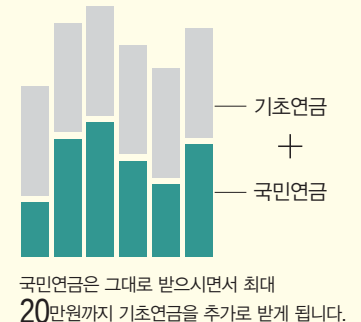
• 상위 30%를 제외한 65세 이상
어르신 대부분이 20만원을 받습니다



• 대상 어르신 모두가 현재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 국민연금은 그대로 받습니다



가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그에 대한 답을 속 시원하게 알아보자.

왜 복잡하게 국민연금과 연계하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국민연금을 주축으로 하고 기초연금이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처음부터 국민연금과 같이 기초연금을 도입하였다면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는 데 논란이 없었을 테지만, 국민연금과 별도로 운영되는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된 상황에서 지속 가능하면서도 노후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만들려고 하니 복잡한 과정이 불가피해진 것.

앞으로 국민연금을 발전시켜 대다수 국민이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 소득의 일정부분을 보장받고, 국민연금액에서 부족한 부분은 기초연금으로 보전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이 계속 발전하면 아마도 90% 정도 되는 노인이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도 도모할 수 있겠다고 판단, 정부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서 지급하게 되었다.

국민연금 가입자 불리한 건 아닌가?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차등지급하는 것보다 유리하고, 실제 지원받는 절대액도 무연금자보다 항상 많다. 절대 국민연금 가입자가 불리한 상황은 아닌 셈. 또한, 국민연금 수급자는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제도를 통해 사회적 위험(장애·사

망)으로부터의 보호, 사회적 기여에 따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의 도입으로 국민연금 제도가 변하는 것은 없다. 받고 있는 국민연금은 지급과 동일하며, 여기에 기초연금을 더하여 받게 되는 것이다.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조세로 충당, 국민연금 기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손해?

가입기간 1년이 증가할 때마다 기초연금액은 월 6천7백 원 감소하지만, 국민연금으로부터 월 1만 원 이상의 금액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미래 세대는 15년 동안 가입해도 무연금자와 동일한 20만 원을 받게 되는 것. 30년 가입 시에는 10만 원 이상 수급, 30년 이상 가입 시에는 10만 원을 수급하게 된다. 또한, 현 세대 노인의 경우 11년 이상 가입하면 2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받지만, 가입기간이 짧은 노인(특례노령연금수급자)이 대부분으로 88만 명(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중 70%가 20만 원을 받게 된다.

이렇듯 국민연금에 아무리 오래 가입하더라도 상위 30%에 해당하지만 않으면, 최소 1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으로 분명한 것은 당장에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의 빈곤 완화에 도움이 되리라는 것. 그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의 부담을 줄여주고 앞으로 계속 우리의 노후를 건강하게 만들 것이다. 든든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 마련된 기초연금제도, 도움이 시급한 많은 노인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길 기대해 본다.

세포 건강을 아십니까

세포
건강 음식



곡류는 쉽게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 불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지 않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미나 콩, 팥 등의 곡류로 밥을 지어 먹게 되면 오래 씹어 체내 음식 섭취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제철 과일은 해당 계절에 가장 높은 영양분을 가지고 있어 영양분 섭취하기에 제일 알맞은 음식이다.



신선한 채소도 세포 건강에 좋는데, 그중에서도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피망이 대표적이다.

오메가 3가 많은 음식으로는 고등어나 참치와 같은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 시금치, 들기름이 있다.



왜 세포인가?

인간은 살아 숨 쉬는 유기체이다. 인체의 세포는 60조 개에서 100조 개의 어마어마한 숫자로 구성되어있는데, 이 세포가 바로 몸이라는 유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한 개의 세포에는 우리 인간의 어떤 개발품이나 첨단 기술보다 더 뛰어나고 정교한 시스템이 있다. 그러므로 장기와 조직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해야 하는데 이 기능이 신진대사다.

세포에 가장 중요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핵인데 이는 특정 대사 기능을 결정하는 유전정보를 가지고 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특성이나 성격, 피부색, 혈액형 등을 핵 안에 염색체들이 잘 저장해 놓고 있다. 중재인 역할을 하는 RNA와 활성화된 DNA(유전자)는 단백질 합성을 조절해 준다.

세포질에는 호흡에 관여하는 미토콘드리아가 있다. 그것은 사람마다 수가 다르다. 미토콘드리아가 적으면 적을 수로 우리의 인체는 질병에 걸리기 쉽다. 미토콘드리아는 다른 말로 사립체라고 하는데 세포의 발전기 역할을 한다. 발전소가 연료를 태워서 전기를 만들어 내듯이 우리가 먹은 영양소들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뇌 발달에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해라!

아이들의 신경 계통은 빨리 자라므로 뇌 발달에 필요한 단백질, 아미노산, 양질의 지방 등을 섭취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지방은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중요한데, 천연 성분으로서 1:4 정도의 비율이 적당하다. 하지만 아이들이 정제된 어류에서 나는 오메가3를 영양제로 먹기는 어렵다. 따라서 포화지방을 덜 먹고 식물성 불포화지방을 많이 먹는 식으로 비율을 맞추는 것이 좋다. 그러나 아이들은 성장해야 하므로 동물성지방도 적절히 섭취해야 한다. 단백질은 닭고기, 가금살 등을 아마씨유로 요리해 먹으면 좋다.

특히 우리 몸에는 자연의 암호가 숨어 있다. 치아는 어금니, 송곳니, 앞니로 구성되는데, 어금니는 곡류를, 송곳니는 육류를, 앞니는 채소류를 잘 섭취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아이들은 24개월이 되면 치열이 완성돼 모든 것을 씹을 수 있다. 유치는 20개인데 그중 앞니는 8개, 송곳니는 4개, 어금니는 8개이다. 이는 곧 음식을 먹는 비율을 의미한다. 만 6세부터는 영구치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앞니가 아닌 어금니가 제일 먼저 나온다. 그 후 어금니의 숫자가 늘어나 어른이 되면 총 32개의 치아 중 어금니가 20개나 된다. 즉, 나이가 들수록 채소류, 곡물 위주의 식사를 해야 우리

몸에 적합하다는 얘기다. 치아의 비율을 통해 자연스럽게 육류, 채소류, 곡류의 섭취 비율을 알 수 있다.

세포가 비만을 좌우한다

아이들이 한 번 살이 찌면 어른들보다 빠기 어려운데 그 이유도 세포에 있다. 세포가 분열하는 시기인 성장기 아이들이 지방을 과잉 섭취하면 지방 세포의 숫자가 늘어난다. 어른은 세포의 숫자가 일정하므로 식이 조절과 운동을 통해 세포의 사이즈를 줄일 수 있지만, 아이는 세포 수 자체를 줄일 수 없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힘들다. 지방 세포의 수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면 제대로 컨트롤하기 어려우므로 소아 비만은 경계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대사증후군이나 당뇨병 등에 걸릴 위험이 있다. 따라서 병원, 피트니스센터 등에서 기초대사량을 측정해 칼로리 섭취를 조절하고, 운동으로 기초대사량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과잉 섭취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오래 씹어야 한다. 현미밥이 백미밥보다 더 좋은 이유도 40번 이상 꼭꼭 씹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백미는 씹으면 금방 흐물흐물해지고 단맛이 생기기 때문에 삼키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현미는 오래 씹어야만 고소한 맛이 나고 삼키기에 적당한 상태가 된다. 뇌의 저작 중추 바로

옆에는 포만감 중추가 있어 오래 씹을수록 금방 포만감을 느끼고 과식을 방지할 수 있다.

과일은 통째로 먹어라!

과일은 껍질째 먹어야 좋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통째로 먹는 것이다. 옛말에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라는 말이 있다. '함함하다'는 털이 보드랍다는 뜻이다. 자기 자식은 그만큼 소중한다는 것인데, 이는 식물도 똑같다. 식물에게 새끼는 씨앗. 이를 보호하기 위해 식물은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다. 예를 들어 포도는 강한 자외선 등으로부터 씨앗을 보호하기 위해 껍질 바로 밑에 강력한 보호 물질을 만든다. 따라서 껍질을 버리고 알맹이만 먹는 것은 좋은 성분은 다 버리고 칼로리만 섭취하는 셈이다. 껍질과 씨앗을 먹기 불편하면 갈아서 마시는 것이 나운데, 이때는 믹서기보다 강판을 사용하는 게 건강에 이롭다. 과일에 든 비타민은 믹서기로 갈 때 생기는 열에도 영향을 받는다. 기름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해야 한다면, 양질의 기름을 써야 한다. 특히 들기름은 오메가3가 풍부해 우리가 먹는 기름 중 제일 좋다. 열을 덜 가해서 만든 것이어야 하고, 보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조금씩 짜서 빨리 먹으면 좋다.

우리나라 해돋이 명소 BEST 7

여명이 밝아오고 노을이 하늘을 가득 메울 무렵, 사람들은 소원한다. 한해의 건강, 사랑, 그리고 행복... 그때의 설렘과 벅찬 마음을 어떤 것에 표현할 수 있을까? 1월 1일, 단 하루만 느낄 수 있는 감동을 선물해줄 해돋이 명소 BEST 7.

글 김현선 사진제공 문화재청 / N서울타워 / 포항시문화관광 / 여주시관광정보 / 완도군청 / 제주도정뉴스

서울의 랜드마크 서울 N서울타워

서울에서 해돋이를 보고 싶다면 높은 곳으로 가자. 동해와 떨어져 있는 서울은 낮은 곳에서 해돋이를 기다렸다면 '해가 뜨는 것'이 아니라 '주변이 밝아지는 것'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추천하는 곳이 바로 남산의 N서울타워. 높은 타워 안의 전망대로 올라간다면 물론 좋겠지만, N서울타워 밖의 팔각정이나 열쇠 탑이 있는 난간에서도 해돋이를 볼 수 있다. 도심 속 빼곡히 들어찬 빌딩 숲 너머로 떠오르는 붉은 해는 지평선이거나 수평선 너머로 뜨는 태양과는 다른 오묘한 느낌을 자아낸다. 새벽이 밝아지면서 분주해지는 서울을 보는 것도 묘미. 내려오는 길에 남산공원을 한 바퀴 돌아오는 것도 좋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1-3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강릉 경포 해변

끝도 없이 펼쳐진 수평선, 눈이 시리게 푸른 바다 동해. 여기에 고운 모래사장과 하얗게 밀려오는 파도까지 더해진다면 그날은 해돋이뿐 아니라 낭만이 가득한 바다여행으로 기억에 남을 것 같다.

경포 해변은 사계절을 불문하고 찾는 손님이 많은 해변이다. 특히 매년 1월 1일에는 해돋이를 기념하는 잔치가 열려 북적이는 사람들 틈에서 다가오는 새해를 즐겁게 맞이할 수 있다. 경포 해변 해돋이의 백미는 해가 떠오를 무렵 붉게 물드는 바다라 할 수 있는데, 오직 하늘과 바다만이 펼쳐진 장엄한 광경에 보는 사람이면 모두 입을 다물지 못한다. 경포 해변 뒤편으로는 경포호수와 경포대, 오죽헌 등 강릉의 역사와 문화를 대변할만한 굵직한 볼거리도 가득해 해돋이 뒤에도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다.

주소 : 강원도 강릉시 안현동 산1



가장 먼저 해가 뜨는 포항 호미곶

한반도가 호랑이 모양을 하고 있다면, 호미곶은 호랑이의 꼬리에 해당한다. 독도와 울릉도를 제외하고는 한반도의 가장 동쪽에 있고, 가장 먼저 해돋이를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호미곶에 도착하면 해맞이광장 바다와 육지에 각각 마주 보는 손 모양의 동상이 있는데, 이것을 '쌍생의 손'이라고 부른다. 얼핏 보면 그냥 동상 같지만, 바다에 있는 동상의 손가락 사이로 떠오르는 해가 마치 손에 쥐어져 있는 듯 색다른 모습을 연출한다. 또 경상북도기념물 제39호로 지정된 호미곶 등대가 새하얀 모습으로 푸른 바다와 깔끔한 조화를 이루고 있고, '연오랑세오녀' 설화도 전해져 내려와 미리 알고 방문하면 더 재미있는 해돋이 여행이 될 것이다.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 296-2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 제주 성산 일출봉

성산 일출봉은 제주도의 동쪽 끝에 있다. 그 모습이 거대한 성과 같다 하여 성산이라 하고, 해돋이가 유명해서 일출봉이라 덧붙인다. 일출봉이라 부를 만큼 해돋이가 유명해진 것은 성산 일출봉 둘레의 기암괴석에서도 알 수 있는데, 고려 말 삼별초를 이끌던 김통정 장군이 심신을 단련한 ‘등경돌’을 보며 해가 뜰 때 가족의 평안과 안녕을 빌었다는 제주인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또 육지에서 파견 온 제주의 목민관들 또한 성산 일출봉에서 뜨는 해를 바라보며 비와 바람이 많은 제주의 평안을 기원했다고 하니 이토록 의미 있고 간절함이 담긴 해돋이가 또 있을까?

지금도 성산 일출봉은 이름처럼 전국각지, 세계 곳곳의 관광객이 해돋이를 보러 매년 1월 1일은 물론이고 연중 상시 장관을 이룬다. 소원도 소원이거니와 성산 일출봉에서 보는 해돋이가 제주 10경 중 하나라니 그 모습 또한 기대되지 않는가.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114



변화무쌍한 부산 오륙도

안개가 끼거나 밀물일 때는 6개였던 섬이 맑은 날이나 썰물이 되면 5개로 합쳐진다는 섬 오륙도. 그 변화무쌍한 이름만큼이나 해돋이의 모습도 각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오륙도의 5개 섬 중 유인도는 육지에서 가장 멀리에 위치한 등대섬 한 곳. 따라서 오륙도에 직접 들어가기보다는 오륙도를 배경으로 해돋이를 보는 것이 좋다. 그 위치로는 먼저 오륙도를 비스듬히 겹쳐 볼 수 있는 ‘오륙도해맞이공원’이 있는데, 바다 위로 유리다리를 걸어가는 ‘오륙도 스카이워크’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또 다른 곳으로는 오륙도를 동쪽에 두고 일직선 상의 섬들을 완전히 볼 수 있는 영도구정으로 오륙도 섬 사이로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다.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936-941



고요하고 아늑한 여수 향일암

금오산 바위와 나무 사이에 해를 바라보고 서 있는 조용하고 아담한 사찰. 이름도 해를 바라본다는 뜻의 향일암(向日庵)이다. 향일암은 주차장에서 약 20분 동안 가벼운 등산 후에 만나볼 수 있다. 올라가는 길에 일출광장이 있지만, 향일암까지 가는 것을 추천한다. 킁킁한 바다에 해가 떠오르면 향일암 전체가 붉은빛으로 물드는데, 오색단청과 섬세한 사찰의 처마 선이 유독 아름답다. 처마 사이로 보는 해돋이 또한 향일암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것. 해가 높이 떠오를수록 햇빛은 향일암과 바다를 따뜻한 금빛으로 감싸 안는다. 내려오는 길에는 여수의 특산물 갯김치 거리가 있으므로 통통하게 살이 오른 홍합 전과 막걸리, 갯김치를 맛볼 수도 있다.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울림리 산7

新 땅끝 완도 다도해일출공원

해남과 완도 사이에 연륙교가 놓인 이후로, 완도는 해남 땅끝마을과는 또 다른 의미의 한반도 최남단으로써 주목받고 있다. 또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섬이 많아 섬 각각의 자연과 경치가 빼어나고 문화유산이 풍부한 곳이기도 하다. 다도해 일출공원은 완도 본섬의 남동쪽에 있는 공원으로, 바다에 떠 있는 섬과 섬 사이가 시야를 가리지 않고 트인 탓에 해돋이를 보기에는 안성맞춤이다. 또 완도타워는 산 정상에서도 높이 솟아있어 그 일대를 내려다보는 재미도 있다. 겨울이면 공원에 붉은 꽃잎의 동백꽃이 만발하고, 특히 맑고 잔잔한 바다에 웅기종기 떠있는 섬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다. 밤이 되면 완도타워의 레이저쇼도 볼 수 있으니 이 점도 빠뜨리지 말 것.

주소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산105-6



나랏돈, 절약과 베품

글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성균관대 석좌교수

『목민심서』를 읽다 보면 오늘의 고위공직자들이 왜 그렇게 『목민심서』 정신에서 멀어저만 가고 있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국회가 실시하고 있는 국정감사에 대한 뉴스를 듣다 보면 오늘의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공공기관들이 누적된 빚으로 살림살이가 어려운 현실이지만 청사를 짓거나 관청의 시설물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들여 호화스럽게 만들고 있다. 여기서 아껴 쓰는 일과 베풀기를 좋아하는 일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산은 율기(律己)편에 낙시(樂施)조항, 곧 베풀기를 좋아하라는 항목을 설정하여 “절약만 하고 재물을 나눠 쓸 줄 모르면 친척들도 멀어진다(節而不散 親戚畔之)”라고 경고하고, “베풀기를 즐거워함이 덕을 심는 근본이다(樂施者 樹德之本也)”라고 말하여 아껴 씀과 베품의 관계를 세세하게 설명한다. “못에 물이 괴어 있음은 앞으로 흘러 내려 만물을 적셔주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절약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베풀 수가 있고

절약할 수 없는 사람은 베풀지 못하기 마련이다.”라고 비유하면서 절약하여 축적된 재화가 있어야 베푸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득력 있는 예를 들고 있다. “창기(娼妓)를 불러서 거문고 타고 피리 불 때, 비단옷 입고 높은 말에 좋은 안장을 차리거나, 그것도 부족해 상관에게 아첨하고, 권귀(權貴)들에게 뇌물 바치는 비용이 하루에도 수만전을 넘고, 1년이면 소비하는 돈이 억만전이나 되어서야 어떻게 친척들에게 베풀 돈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사치하고 낭비하면서는 베풀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아껴 쓰는 일이야말로 베풀기를 즐기는 근본이다(節用 爲樂施之本)”라고 설파하였다. 이 대목에서 다산은 자신의 경험까지 소개하고 있다. “내가 귀양살이하면서 나를 동정해주고 도움을 주는 수령들은 볼 때마다 겸소한 의복을 입은 분들이었고, 화려한 옷을 입고 얼굴에 기름기가 돌며 음탕한 짓을

즐기는 수령들은 나를 돌봐주지 않았다”라고 증언하면서 절약과 베품의 관계를 부연 설명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선출직이 되면서 그들에 대한 통제기능이 소홀한 틈을 타 낭비만 과도해지고 아껴 쓰는 풍토가 사라져 빚더미에 허덕이는 자치단체가 많아졌다. 때문에 주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고 있다는 보도를 들으면, 새삼스럽게 다산의 지혜가 더욱 간절하게 생각된다. 그래도 한 지역의 수령인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라면 가까운 친척이나 옛날의 친구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기꺼이 도와주고 보살피주는 ‘낙시(樂施)’를 실행할 수도 있건만, 과도한 지출이나 낭비 때문에 그럴 줄을 모른다면 수령 노릇 하는 무슨 재미가 있을까.

절약만 하고 쓸 줄을 몰라도 문제지만, 호화롭고 찬란함만 추구하다가 어려운 사람 하나 도와주지 못함도 큰 문제가 아닐까?



마음에 새길 『목민심서』 제6장 호전육조(戶典六條) 中

간이활이 잠취민결 이룩어제역지촌자 명사엄금

(奸吏滑吏 潛取民結 移錄於除役之村者 明查嚴禁)

간사하고 교활한 아전이 백성들의 전결을 몰래 취하여 제역촌(除役村)에 옮겨 기록한 것은 명백하게 조사하고 엄중히 금지하여야 한다.

궁전둔전 기박할태심자 찰이관지

(宮田屯田 其剝割太甚者 察而寬之)

궁방전과 둔전으로서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는 일이 너무 지나친 것은 수령이 살펴서 너그럽게 해주어야 한다.

상류기탁 하류난청 서리작간 무법불구 신간귀환 무이소찰

(上流既濁 下流難清 胥吏作奸 無法不具 紳姦鬼滑 無以昭察)

상류(上流)가 이미 흩렸으니 하류(下流)가 맑을 수 없다. 아전들이 농간을 부리는 데 온갖 방법이 쓰여지고 간사하고 교활함이 귀신 같아서 밝게 살필 수가 없다.

폐지여차 비목지소능구야 유기출납지수 분유지실 목능인명 즉리횡미심의

(弊至如此 非牧之所能救也 惟其出納之數 分留之實 牧能認明 則吏橫未甚矣)

환상의 폐해가 이와 같으니 수령으로서 구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다만 출납의 수량과 나누어 준 것과 유치(留置)한 것의 실수(實數)만 수령이 밝게 알고 있으면 아전의 횡포가 덜 심할 것이다.

NEWS & PEOPLE

2013.11+12



01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 개설... 신고상담 ☎ 110 상담에서 신고자 보호·보상까지 원스톱, 보상금 최대 20억 원

정부의 복지 예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신고받아 조사하는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의 현판식이 지난 10월 30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개최되었다. 현판식에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신고센터의 주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성보 위원장, 관계부처인 황교안 법무부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이영찬 보건복지부차관 등 40여 명의 관계자가 참가해 성황을 이루었다.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는 정부대표민원전화인 110콜센터와 연계하여 각종 복지부정 신고상담, 신고접수와 처리, 실태조사, 제도개선, 보호·보상 등의 업무를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한다. 신고센터에는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과 사업을 주관하는 11개 기관 17명의 직원이 합동근무하고 있다.

복지부정 관련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분 및 비밀이 보장되고, 신분 보호도 물론 철저히 지켜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대국민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복지예산의 부정 사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협력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이날 이성보 위원장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복지부정 사례에 대해 국민이 상담과 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정부 내에 일원화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그동안 축적된 비결을 활용하여 귀중한 형세가 부정한 방법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라고 굳은 의지를 보였다.

02 <국민권익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월 30일 서대문구 미군동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대강당에서 <국민권익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권익위가 추진해온 정부 3.0의 정책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오랜 열기 끝에 최우수상을 받은 권익개선정책국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관 합치 공간, 온라인 국민신문고’라는 주제로 정책 전 과정에 국민 각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해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행정심판국에서 ‘분야별 맞춤형 사례의 개방과 공유, 기관 간 칸막이 제거로 소통과 협력’이라는 주제로 우수상을 받았으며, 장려상은 권익개선정책국의 ‘국민을 감싸주는 따뜻한 3.0, IT를 활용한 국민소통 사각지대 해소’와 부패방지국의 ‘부패·공익침해 감시, 정부 3.0으로부터’가 공동 수상하였다.



03 국민권익위원장, 키르기즈 대통령과 반부패 협력방안 논의

지난 11월 20일 오전,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과 키르기즈공화국 아탐바예프 대통령이 만나 양국 간 반부패 노력에 대한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성보 위원장은 아탐바예프 대통령에게 ODA(공적개발원조)사업의 일환으로 권익위가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외국공무원 대상 청렴교육과정」에 키르기즈공화국 공무원의 참여를 제안했고, 아탐바예프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이번 만남을 계기로 향후 양국 간 보다 활발한 반부패 교류 활동을 이어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실무차원에서 반부패 역량 강화 연수와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04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세미나 개최

연말연시에 많이 발생하는 음주운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8일에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 및 지방청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민관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연간 행정심판의 75%에 달하는 음주운전 관련 행정심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자리로 다양한 정책방안이 논의되었다. 세미나에서는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방안과 상습운전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시민신고제도 활성화 방



안 등이 제시되었다. 권익위는 이번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민관합동세미나를 계기로 유관기관 전문가와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정부3.0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05 청렴전문가·청렴 코치 성과 보고회 개최

지난 11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학생 청렴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활동성과 보고대회 및 시상식을 진행했다. 「대학생 청렴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이 스스로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직접 청렴교육과 홍보에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어 보는 프로젝트로, 제작된 콘텐츠는 실제 권익위의 청렴교육과 홍보업무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보고대회에서는 총 11개 팀의 활동성과 발표가 있었으며, 그중 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2팀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청렴전문가 56명에게도 수료증을 수여하였다.

또 29일에는 청렴코치 육성프로그램 활동과 보고회도 잇달아 열렸다. 「청렴 코치 육성 프로그램」은 대학(원)생, 졸업생 등이 2개월간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3개월간은 중·고등학교에 청렴교육 코치로 나서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된 콘텐츠 또한 일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권익위 담당자는 이에 대해 “젊은이들이 직접 청렴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육을 해봄으로써 사회 전반의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독자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약! 올바르게 먹어요!〉기사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약을 먹어야 하는 저에게 딱 맞는 기사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될만한 기사를 많이 써 주세요. 수족냉증이나 겨울에 생길만한 질병에 관한 기사도 좋겠네요. 국민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익환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65세 이상 노인들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네요. 또 현재 일하고 있는 노인 중에서도 부당한 대우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이 점 밝혀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훈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가을은 알이 짝 찬 꽃게와 싱싱한 전어가 맛있는 계절이죠. 〈서해 최대의 수산물 집합소 서천 특화시장〉기사는 맛있는 가을 음식과 짠 냄새 나는 서해가 눈앞에 있는 듯한 기사였습니다. 다음 달엔 어떤 시장의 정겨운 이야기가 실릴지 벌써 기대네요.

서정민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한글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몇 번이고 정독하였습니다. 과학적이면서 아름다운 한글을 두고 무분별한 외래어나 비속어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글과 문화에 좀 더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올바른 우리 문화 정착을 위해 힘써주세요.

안동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벌써 가을이 깊었네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공부 때문에 자주 못 보는데, 잠시라도 아이들과 함께 감성을 충전할 수 있는 가을 여행을 다녀오렵니다. 소개해주신 가을축전과 함께라면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네요. 좋은 추억을 만들어야겠습니다.

강예숙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ACRC QUIZ

1 국민권익위원회의 소속기관으로 청렴강사 양성 과정, 공직자 청렴역량 강화 과정, 공공업무 분야 별 맞춤형 청렴 과정 등 청렴을 주제로 한 교육과정이 개설 중이다.

① 청렴연수원 ② 청춘연수원 ③ 청호연수원

2 네이버 웹툰에 매주 목요일 연재되는 옴니버스 형식의 만화. 국내 최초로 법이라는 소재로 다루고 있으며, 특히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다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① 서울검사 조지호 ② 동네변호사 조들호
③ 지역판사 조만호

3 제주 공항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시장으로, 상설시장으로 최대규모를 자랑한다. 빻떡, 오메기떡과 같은 제주 전통 식품들과 갈치, 고등어회, 전복 등의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① 제주 대문시장 ② 제주 지문시장
③ 제주 동문시장

지난호 정답 :

- ③ 국민행복제안센터
- ③ 구례산수유꽃축제
- ② 서천특화시장

〈국민권익〉을 읽고 난 소감과 바라는 점 등을 엽서에 적어 보내주세요. 엽서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퀴즈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 다섯 분을 추첨해 전통시장상품권을 드립니다. 11+12월호 응모마감은 12월 31일까지이며, 9+10월호 당첨자 상품은 12월 31일 등기우편으로 발송 예정입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2014년 1월 1일부터
관공서·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할 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999 ← 1 대한대로
Daehan-daero

우편, 택배, 인터넷쇼핑 등 일상에서도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로 생활하세요!



세종대로
Sejong-daero
209

도로명

건물번호

도로명주소란?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쉽게 표기하는 주소입니다

☞ 단독주택

지번주소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왕정리 19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적돌길 100

☞ 공동주택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3-10
OO아파트 OO동 △△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58,
OO동 △△호(서초동, OO아파트)

국민권의 보호,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 온라인 정책토론,
예산 낭비 및 공익침해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범정부 국민소통창구
 www.epeople.go.kr

국민행복제안센터

국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수받아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온·오프라인 범정부 통합제안센터
(인터넷:국민신문고, 전화:110)

110콜센터

정부에 불편한 일, 어려운 일 상담·안내,
부패·공익 신고 및 복지 부정수급
신고가 가능한 정부대표민원전화
국번없이  110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